

코로나-19 이후의 목재류 및 주요 임산물 수출입 동향 분석

Analysis on Import and Export Trend of Timber and Forest Products by Post-Covid 19

허경도¹, 김동현¹, 설미현¹, 전철현^{1*}

(¹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 국제산림연구과, e-mail : ecoecon@korea.kr)

Gyong-Do Heo¹, Dong-Hyun Kim¹, Mi-Hyun Seol¹, Chul-Hyun Jeon^{1*}

(¹Department of Global Forest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2020년 초반부터 발생한 covid-19 이후의 목재류, 석재류 및 단기임산물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장에 주로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은 유가 폭등, 환율 변화, 국제적인 외환위기, 경제 및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건강 및 위생)으로 인해서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처음이라고 보여짐.

주요 내용 및 연구 결과

2010년 이후의 목재 및 임산물 교역 전체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5억 달러에서, 2018년 83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2019년 69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61.7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2020년의 수치는 2019년 대비 약 10.8% 정도 감소한 것임. 2020년 수출은 2019년 대비 약 6.6% 감소하였고, 수입은 2019년 보다 약 11.1% 감소하였음. 먼저,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1.6억 달러에서 2018년 5.2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4억 달러였고, 2020년에는 3.8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33.6억 달러에서 2018년 78.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65.1억 달러, 2020년에는 57.9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2020년은 2019년보다 약 11.0% 감소한 수치임. 품목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목재류 수입액은 2017년 51억 달러, 2018년은 58억 달러, 2019년은 48억 달러, 2020년은 42억 달러였음. 단기임산물 수입액은 2017년에 7.5억 달러, 2018년 8.3억 달러, 2019년은 7.8억 달러, 2020년은 7.6억 달러였음. 석재류 수입액은 2017년 10.8억 달러, 2018년 11.1억 달러, 2019년 9.3억 달러, 2020년은 8.2억 달러였음. 연도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8년은 30.9억 달러, 2019년은 30억 달러, 2020년은 26.9억 달러로, 2019년에는 2018년보다 3.1%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2019년보다 10% 정도 감소하였음.

품목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목재류의 경우 2017년 2.1억 달러, 2018년 2.5억 달러, 2019년 1.7억 달러, 2020년 1.6억 달러였음. 단기임산물의 경우에는 2017년 1.1억 달러, 2018년 1.2억 달러, 2019년 1.05억 달러, 2020년 0.9억 달러였음. 석재류의 경우, 2017년 1.2억 달러, 2018년 1.6억 달러, 2019년 1.31억 달러, 2020년 1.29억 달러였음. 2020년의 코로나-19 발생과 더불어 목재류 및 임산물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약 10% 이상 감소하였음. 특히, 수출보다는 수입에서 큰 영향을 받아 수입량이 감소하였음.

그림1. 연도별 목재류, 석재류 및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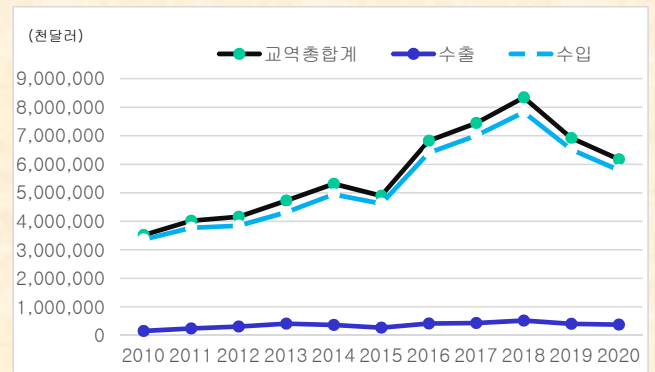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수입(목재류, 단기임산물, 석재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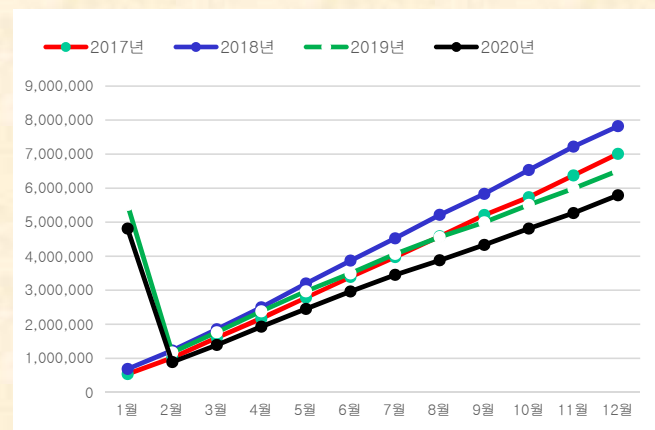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목재류 수입 동향

